

「 마을의 어제 」

전통마을의 역사문화적 성격

- 이 해 준* -

1.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역사
2. 전통생활, 마을문화의 가치
3. 전통생활, 마을문화 ‘바로보기’
4. 현대에 다시 보는 전통마을문화

*[현] 공주대 사학과 교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역임

[전]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01-04)

역사문화학회(08-10)

한국서원학회(11-14)

1.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역사

※ ‘쓰여진 역사’ 와 ‘쓰여지지 않은 역사’

※ ‘쓰여질 수 없었던 역사’ ‘쓰여질 필요가 없었던 역사’

역사적 사실이 골동·박제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했던 당시대의 생활사가 보다 면밀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지리적 조건이나 교통로와 무관하게 전투사가 전과중심으로 기술된다거나, 농업의 변천이나 농민조직의 속성을 도외시한 채 농민운동사가 연구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신문기사가 그렇듯이 과거의 역사기록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문화나 그 변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록하지 않았고,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뿐인 것이다. 그런데도 역사학은 기록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지배층 중심의 관찬 기록물들에서 보여지는 생활사의 모습들은 보편적인 모습이기보다는 예외적이고 돌연변이적인 것일 경우가 많다. 중앙지배층의 시각에서 왜곡·편파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중앙의 관찬기록에서 확인되는 지역이나 민중의 기록들도, 보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항이거나, 중앙지배층의 시각에서 왜곡된 것일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삶을 살았던 대다수 민중들의 생활상이나, 특히 중앙이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상은 2류 이거나 예외로 편파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민중의 생활사를 뒷받침할 피지배 민중들 ‘자신의 記錄’은 거의 없다. 또 역사서들에서도 민중의 움직임이나 의식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대부분은 민중들의 입장이나 이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반대의 지배층이나 집권층 중심의 일방적 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것들이다. 혹자는 그래서 흔히 역사가 ‘승자의 기록물’이라거나 ‘지배층의 자전’이라고도 한다. 이 말의 진위나 평은 뒤로 미루고서라도 그 말뜻의 일부에는 ‘패자’나 ‘기층민’에 대한 역사기록의 무책임을 뜻하는 측면이 일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쓰여진 역사 속에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부분이 많고, "쓰여지지 않은 자료"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하며 이와 함께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자료원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들 제2, 제3의 자료원은 도처에 수없이 많다. 대개 민속이나 민중생활 문화가 기록으로는 거의 남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자화된 근거자료를 남긴다는 것은 어렵고, 또 실제 기록 이외의 자료로 전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2. 전통생활, 마을문화의 가치

그런데 우리는 지리나 환경, 생태 등의 문제를 대개는 문화사 연구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지역의 문화가 성장·발전해온 과정을 연구의 목적이라 한다고 보았을 때 그 같은 문화가 생성되는 배경으로서 자연환경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의 연구는 단순한 산·강·하천·도로 등의 이름과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천과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산물의 변화, 교통과 도로의 변천, 행정구획의 변천, 하천·관개시설의 변화같이 주민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주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모습들에 많은 지혜와 전통적 가치들이 숨겨져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5일장과 옛길, 통혼권과 문중조직, 촌락운영질서와 생활양식, 토속음식과 특산물, 일년의 민속의례와 놀이문화, 생활도구와 토속어 등등 그 소재는 너무도 다양하며, 거의가 불모 상태로 버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전통생활문화의 가치, 의미 문제

(오해) : 지난 과거 흔적에 대한 회고와 탐색 ?

(주목) : 현재 우리 문화의 저변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할 가치의 저변

⇒ [가능성] 미래의 문화가치,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

- 부정적 평가 : ‘전통문화’, ‘생활문화’를 과거형(퇴영)으로 인식
 - 무관심과 방기 : 고급문화, 영웅중심, 민족논리에서 소외(블루오션)
 - 시각의 편향성 : 감성적(미풍양속), 운동사(민중변혁)로 접근
- ⇒ 포괄적 문화원형 찾기, 이해하기가 필요

3. 전통생활, 마을문화 ‘바로보기’

- ☞ 전통마을이 하나 없어지면 박물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고,
- ☞ 노인 한분이 돌아가신다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 ☞ 마을의 전통 경관을 만들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 마을생활문화는 ‘점검’, ‘평가’ 받으면서 살아남은 실용 문화

- 민중생활문화는 삶의 진솔한 증거다
- 선조들에 의해 점검, 평가 받으며 살아남은 것
- [경험, 실용, 지속성]이 검증된 문화다.

※ 마을은 보편적 삶의 문화가 살아 숨쉬던 생생한 현장

- (생태환경 + 사람 + 문화)를 만나는 곳
- 다양한 생활문화가 전승되는 현장
- 전통생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 마을문화의 종합성

- "마을은 고정된 공간으로 지연적인 폐쇄성도 갖지만,
인접마을과의 부단한 접촉과 문화교류 속에서 공존하여온 집합체"
- 자연 생태, 풍수, 민요, 지명, 설화, 민담, 특산물, 공동체 의식과 정신문화
- 전통생활문화는 통합된 지식문화 산물
; 순창 고추장 = 재료와 기술 ≠ 맛

※ 조사 정리의 방향

- 김택규 교수의 ‘마을 조사의 3유형’
 - ① 밖에서 관찰하는 방법
 - ② 안에서 보는 방법
 - ③ 마을 사람의 입장(주인, 주체)에서 보는 방법
- 마을민의 주체적 시각으로 정리
- 마을 특수성의 발견 및 각기 돌출된 문화들을 상호 연결 및 종합
- 단편적 자료의 나열이 아닌 변천사를 유념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용이 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들이 ‘고향의 내음’을 말할 때, 대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마을의 정취를 먼저 떠올린다. 굽어 도는 동구 밖 길에서 우리는 고향을 숨결로 느끼며, 들녘과 골목길, 뒷동산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연상하는 것이나, 한없이 인자했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하며 항상 야단만 치시던 큰할아버지의 모습, 물레방아간과 보리밭의 누나와 형들의 연애이야기하며, 들기보다는 어깨에 걸쳐 맺던 책 보따리, 동네잔치 날 한판 어우러졌던 아저씨 아주머님들의 흥취 등등 무언가 알 수 없는 감회가 일어나고 이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고향마을에서만 배어나올 수 있는 향수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기억이어도 좋고, 때로 주먹 쥐는 한판 싸움의 기억이어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용어나 서술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역 문화는 인간들이 자연 또는 사회배경들과 부단히 접촉하면서 형성한 생활능력의 총체이며, 결과물이다. 지역문화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문화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 진행과정에서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문화는 지역민들로서는 자신들의 본전이고, 정서적인 고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거나 특징을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겨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마련이다. 즉 지역문화향토문화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되어 있으며,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 날 수도, 반대로 사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1) 전통마을문화의 문화요소들

환경과 생태, 지리	취락입지와 농지, 산, 하천, 도로, 기타 주요 지명, 지명, 풍수, 설화
마을의 역사와 변천	마을의 ‘나이’ ; 형성 변천사, 입향성씨, 저명성씨와 인물 배출, 역사 변천과 주요 사건, 문화유산, 유적
민속과 생활 문화	신앙, 의례, 세시풍속, 지명, 설화, 생활사, 놀이, 음식과 언어, 특산물
생활공동체 조직	혈연, 친족조직(족계, 화수계, 문중계), 동계, 대동계, 촌계(당제, 기우제), 상여계, 서당계, 송계, 두레 등
생활문화 공간	문화권과 생활권의 복원, 연대와 교류, 분화 상여권, 단골(무당)권, 시장권, 혼인권, 서당권 장승, 당산나무, 산제단, 마을 숲, 빨래터, 물레방앗간, 우물

2) 마을의 역사적 변천

농지의 저지대 확산과 集村化 ; 조선전기 散居集團으로 존재했던 자연촌들은 조선후기처럼 <郡-面-里(洞)-村>의 명확한 행정편제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관개농법이 본격화되는 16세기 이후 농지가 평야·저지대로 확산(개간 및 제언의 축조)되면서, 그리고 농업생산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확대과정은 그를 주도한 촌락이나 세력으로 하여금 이후 관련된 촌락운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재지사족들의 중심 촌락=사족촌락에 몇 개의 자연촌락이 포함되는 형태로 集村化 한다.(열두 동네, 읍지류의 제언과 교량)

입촌조와 동족마을의 형성 ; 조선시대 촌락발달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동족마을이다. 마을의 형성과 변천사를 정리할 때 우선 주목하는 것이 마을에 정착한 성씨집단의 入村 과정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배경과 이유로 해당마을에 정착하였는지, 또 그 성씨 집단이 기존의 마을 주민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마을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을 연구의 출발이다.

입촌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농지 확대를 주도하거나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한 사족들의 새로운 이거 정착 사례와 연결되며 그 인물이 대개 입촌조이다. 농지의 확대와 저지대 이동을 통하여 경제적 부를 소유하게 된 사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중심촌락(本洞)에 거주하면서, 자연 및 경제공동체로서 공존하였으나 신분적 경제적으로 보다 하위에 있던 주변의 자

연촌(村·谷·亭·坪)들을 통할하였다. 즉 지연 공동체로서 수개의 자연촌락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 묶여 있었으며 대표되는 ‘洞’(本洞)과 ‘里’(本里)가 이들 전체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정 성씨의 입촌 과정은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족보나 구전자료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 같은 입향 사적의 추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묘소의 위치와 처음 잡은 집터의 위치, 선주 성씨의 존재와 그들과의 관련성이다. 대개 경우는 입촌의 동기는 처가나 외가, 혹은 그 이전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으며 이는 입향조의 父나 祖, 혹은 子의 혼인 관계, 관련 성씨의 족보추적이나 유적 확인을 통하여 관련성이 추적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대를 알 수 없는 구전 지명이나 인물설화들이 이런 선주집단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촌락의 분화(분동) ; 한편 조선후기의 촌락 분화나 촌락조직의 변화는 중앙정부의 향촌 통제 방식 변화와도 크게 관련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족들의 향촌지배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완되면서, 그리고 국가가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의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촌락은 기존의 공동체적 결속과 사족 중심의 조직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사실 16-17세기의 조선사회에서 양반사족이 차지하는 지위는 수령과의 연계 속에서 향리나 기타 지방세력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막강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지사족들의 향촌지배는 스스로의 명분상실과 대립, 분열,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일련의 촌락 직접통제 방식의 강구에 따라 서서히 해체되어 갔다. 조선후기 중앙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한 부세체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 일원화되는 추이와, 총액제(공동납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최말단의 부세단위로써 촌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17세기이후 부분적인 시행을 거쳐 18세기에 이르러 전국적인 실시가 이루어진 대동법과 18세기 중엽의 균역법, 균역에서의 郡總制(里定制), 환곡에서의 里還制 등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족들이 중심이 된 동계(동약)조직들은 부세 단위로 전락하는 소위 공동납 체제로 변화된다. 이 같은 공동납의 강화는 종래 유지되어왔던 사회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촌락질서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촌락조직의 종류와 변천 ; 이해와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하여 마을민들은 나름대로의 운영 논리나 규약, 법속, 규범을 만들었다. 변천사라는 측면에서 마을 조직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예컨대 조선전기의 里社나 洞隣契, 혹은 淫祀로 지칭되는 마을 신앙조직이 있었고, 향약의 도입과 확산과정에서 돋보이는 私契나 小契類 촌락조직들도 자생적인 발전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촌락들이 자연촌단위로 분화되자 사족들의 동계 조직은 관념적인 형태로

남거나 형해화되어, 그 영향력의 범위가 소위 本洞(本里) 혹은 사족 신분간의 상호부조적인 역할로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촌 단위에서는 촌계류 조직들이 오히려 실제적인 촌락운영을 담당했다. 그리고 동제(당제)도 큰당이나 작은 당으로 분화, 혹은 아예 다른 당산을 새로 마련하여 독립하고, 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도 마찬가지로 자연촌의 구조에 맞게 재편되어갔다. 洞物(상여, 혼례도구)이나 동답의 분리운영, 서당의 분립 같은 변화도 그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村契 조직은 생활문화 기반위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존속하면서, 洞祭堂祭(당산제)로 대표되는 마을의 민속적 제의와 공동노역(잡역;울역)이나 동린적 상장부조를 담당하였으며, 마을의 공동재산(田畓, 洞物)의 관리를 맡았다. 그리고 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조직도 촌계류 조직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혹은 그 예하의 청장년조직으로 존재하였다.

그런데 촌락의 분화과정을 겪으면서 마을의 조직체계도 과거의 다르게 동계와 촌계간의 상하 지배구조는 사라지고, 村契는 동회와 동제를 맡고, 두레는 생산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변해 갔다. 그리고 특히 19세기 이후 민중의식 성장과 사회모순 증대는 노동조직으로서 계층적 이해를 반영하는 두레조직의 역할과 주도력을 보다 강화시켜, 촌계류 조직이 지녔던 기존의 영향력을 대부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19세기 두레들은 단순히 촌락 내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호미씻이나 대동두레를 통해 보듯이 촌락 간 연대가 이루어진다.

그런가하면 18세기 후반 이후는 사회경제적 발전, 촌락농민의 의식 성장과 함께 다양한 목적계류 촌락조직들이 생겨난다. 예컨대 문중계(화수계), 상여계나 유산계(놀이계), 서당계, 장학계, 송계, 상포계, 우마계 같은 각종의 목적계들이 활발하게 조직, 운영되었다.

3) 두레, 공생과 자율의 생활문화

마을문화의 전통, 공동체 생활문화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들은 대개 “상부상조의 오랜 전통”이나 “순박하고 지혜로운 농민들의 미풍양속” 등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감상적인 것이거나, 실증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여기에 더하여 전통 생활방식이 전근대적이라거나, 극복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까지 겹쳐져 논의가 좀 더 진전되지 못했던 측면도 크다.

전통 촌락에서의 주민자치와 자율의 전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생활공동체로서 촌락은 생업과 문화, 그리고 생태와 자원을 공유, 존속하여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제적 이념적 통제와 별도로 스스로의 자율과 자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촌락사회의 자율과 자치적 전통은 대체로 “공생”과 “평등”, “순리”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레”로 상징되는 농촌의 공동체 문화도 ‘모듬살이의 지혜’이자, ‘共生の 지혜’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론과 객관적, 합리적 논리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눈빛

과 숨소리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情)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문화였다. 또 그것은 법제적 배경이나 관념·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었다. 그것들이 불문율이었지만 어떤 법보다도 강했고, 민주적이었으며 실용적일 수 있었다.

두레는 구성원들이 청장년으로 연령과 능력상 마을의 중심적인 인자들이었고,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구성한 ‘노동’ 조직이라는 점과, 대상의 범위도 전통적인 생활문화 공간이었던 마을을 단위로 하였다. 또 상호부조와 환관상구, 일상의례, 공동행사, 공동노역을 통해 결속된 것이었다.

두레는 물론 공동노동, 생산조직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구성원들이 바로 전근대시기 피지배 농민층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과연 곳곳한 이들 민중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용이 어떠했었는지는 매우 궁금하기만 하다. 두레의 회의는 두레곳의 제의와 결부된 대동회의로서 파제 후 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두레가 농업생산조직이었기 때문에 농신에 대한 제의도 중요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두레의 임원선출과 회계, 그리고 이들이 바로 마을의 공동체적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청장년집단이었기 때문에 마을관련사항이 회의의 주된 내용이었다. 회의는 후대에는 주로 유사집(도가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지만, 원래는 두레군의 집회소인 농청에서 이루어졌었다.

두레 회의는 전후로 구분한다면 전회의는 농사준비회의로서 2월경에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1년 농사의 대소사를 결정하였다. 즉 두레의 재조직 및 역원선출, 신입례와 신참례, 농사 순서 결정, 두레 썸의 기본원칙 확인, 농구 보수, 품앗이와 품삯 결정, 호미모듬 의례준비 등이었다. 두레 농사후의 회의는 한해의 결산, 상호부조, 마을의 대소 공사(길담기, 풀베기) 해결 등이었다.

의사결정은 완전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상부상조의 측면에서 의례적이고 균분적인 사족들의 부조와는 다른 모습의 결정들이 보인다. 예컨대 과부, 노인, 환자가 있는 집안이나 어린아이만이 있는 집의 농사를 두레가 거들어 주고 있고, 마을 전체적인 노역에 인력을 제공하므로써 공동체적 삶의 유지를 우선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이나 조직에 묻어 있는 이들 전통적 요소들은 촌락의 각종 생활문화공동체의 공생을 위하여, 혹은 타 부류와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형태의 조직과 그 운영논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단순히 품삯을 받는 일꾼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이러한 주인정신과 공동체 의식은 노동력을 매개로 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기업구조에서 보는 기업주나 경영자, 노동자의 관계와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두레는 마을의 공생(共生)과 번영을 위하여 주인된 마음으로 생산활동을 하였고, 소속감, 책임감, 생산력의 향상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4) 종합성과 생활문화공간

농촌의 문화자원들은 종합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중시하여야 하며 이들을 필요에 따라 분해하거나 해체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 감나무 곁에서 땡감과 홍시, 꽃감은 물론이고 차와 찜아찌, 염료까지를 만들어낸 지혜는 물론, 감나무와 관련된 지명과 설화, 민요까지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종합문화성’을 우리는 마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감나무곁에 ‘감나무’가 없다고 가상해 보자. 말이 안되는 것이다. 문화공간과 시설은 문화의 필수적인 세트장이자 기능성 자원인 것이다.

세시풍속이 특화자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연희 과정이나 가공기술, 혹은 판매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가능했던 자연지리적 조건과 마을의 역사, 생태와 산물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작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농촌의 청정 환경과 강과 산지, 평야지대가 지니는 전원적인 촌락풍물이 역사문화유적, 풍광, 농민의 순한 정서와 후한 인심, 그리고 그들만의 풍속과 음식 등등이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될 때 독보적인 상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¹⁾

가능하다면 농촌의 청정 환경과 강과 산지, 평야지대가 지니는 전원적인 촌락풍물이 역사문화유적, 풍광, 민속, 음식문화 등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될 때 독보적인 상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농촌문화 자원의 발굴 정리와 함께 마을문화의 여러 흔적(생활유적, 문화공간)들을 복원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촌문화를 체험하려면 농촌문화가 생겨났던 마을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의 전원풍경을 되살리고, 그윽한 고향의 정취가 살아 있는 가족단위의 쉼터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예컨대 원두막이나 정자, 마을 동산, 그네터, 사랑방과 장승, 빨래터나 물레방아간, 초가집과 기와집, 동구밖의 장승과 선돌, 상여집과 방앗간, 당산나무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것이다.[# 천렵 터, 마을 동산, 도가집, 모정, 담장, 골목길, 개천, 마을 숲]

4. 현대에 다시 보는 전통마을문화

1) 마을은 전통문화의 ‘종합전시장’

우리들은 우리들의 고향을 잊고, 또 무가치한 것으로 밀쳐 둔 경향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할 우리문화의 실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들이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과 문화였음에도, 오히려 바쁘다는 핑계와 무관

1) 이해준, 2002, 「농촌문화·지식자원의 활용방향」 『농촌생활과학』 23권 3호, 농촌진흥청

심 속에, 나아가 서구문화에 동화되면서 이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해왔던 것이다.

전통마을문화는 작게는 지역문화이지만 사실은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한국전통문화의 전형이기도 하다. 농촌마을은 한국문화의 원형들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곳이다. 전통마을의 문화는

- 한국의 기층, 토종문화를 대표한다는 점
- 경험, 실용, 지속성이 검증된 문화라는 점
- 종합문화 생활공동체 문화라는 점

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저명한 문화학자들은 한국에 와서 으레 대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농촌마을을 찾는다. 그것은 농촌마을에 가야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문화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이 약해지고 농촌이 해체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전통문화의 단절과 해체를 뜻한다고 하는 것이다.

전통마을문화는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곳곳에서 보여지는 전통문화 단절과 해체를 이어줄 생명줄이다. 그래서 농촌의 해체가 곧 우리 전통문화의 단절과 해체를 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 전통마을문화는 한국인이 “이어가야할 자존심”, “지켜야할 문화전통”, “현대사회의 부정적 문화상을 극복할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마을문화는 “자연과 생태를 거스르지 않고”, “가식과 권위, 과장이 필요 없는” 정말 ‘모듬살이의 지혜’ 이자, ‘공생(共生)의 지혜’ 속에서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생활문화 그 자체였다.²⁾ 그리고 그것은 이론과 객관적, 합리적 논리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눈빛과 숨소리 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끈끈한 인간관계(情)가 밀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문화였다. 또 그것은 법제적 배경이나 관념·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마을에는 다정다감한 전원풍경, 풋풋한 인심이 남아 있고, 마치 아껴두기라도 한 듯 마을 공동체 신앙과 민속문화가 민요, 농요, 민담, 지명, 두레조직 같은 민속문화 유산으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마을에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챙기고 밝혀낸 것보다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의 지식정보 자원들이 전해진다.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버려 둔 ‘한국문화의 원형’,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한국문화들’ 이 많은 것이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경제가 윤택해진 오늘날 ‘전통마을문화’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고 값있게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리고 그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2) 이해준, 2002, 「농촌문화·지식자원의 활용방향」 『농촌생활과학』 23권 3호, 농촌생활연구소

줄 수 있을까? 또 우리 스스로가 문화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니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숙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2) 마을문화의 계승과 자원 활용

마을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자원 활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력의 50%도 달성되기 어려운 일일 가능성이 크지만, 스스로를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첫째로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 그리고 주민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수익창출이나, 도농교류 차원에서 외지인을 위한 배려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표가 되면 본질이 왜곡되고 방향이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

- ‘주민이 없는’ ,
- ‘주민이 자랑스럽지 않은’ ,
- ‘소득 때문에 농촌을 도시로 만드는 것’

이러면 이 사업의 방향은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닐까 싶다.

- ※ 마을민의 自文化 인식, 마을전통문화의 계승, 활용
- ※ 마을 문화컨셉의 중요성(혼선?, 주객전도?)
- ※ 모듬살이 형 공동체문화(두레형 개발)

둘째로 필자는 모든 마을문화 사업에서 마을문화의 기초조사와 정리 선행³⁾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없는 것, 사라진 것, 사라져 가는 것”을 소재로 하는 자원 활용이고 계승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면 本末과 主客이 전도된 문화자원 활용이나 굴절된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주지하듯이 한국농촌사회에서 <50년대-70년대-90년대>는 전승문화가 보존되기 어려운 여러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본의든 타의든 “自文化의 축소와 굴절, 왜곡”이 매우 심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 전승되는 민속을 올바른 시각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굴절되거나 축소 왜곡된 내용을 소재로 선택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활용하고 상품화한 전통문화들이 겨우 문화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혼례, 다례, 한복 입기, 절하기, 그런가하면 민속놀이 몇 가지로 대표되어 ‘외형’과 ‘형상화’된 것에 치중하고, 지역적 차

3) 이해준, 2003, 「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문화』 12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별성이 없어지고 있다. 즉 문화의 내면보다는 외형에 치중하여 ‘보편론의 획일화’ 내지는 획일적 중앙 모델의 ‘매판적 답습’,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등이 생기게 된다.

이 작업은 전문연구자와의 공동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웃소싱을 하거나 지역마다 양성되어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이를 통해서 ① 원형 콘텐츠의 조사, 정리, 보완 ②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특화, 차별성 부각, ③ 활용의 범위와 소재, 대상, 아이디어의 확보, ④ 자료집 제작으로 교육자료나 문화상품화 가능의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차별화와 경쟁력의 담보문제이다. 기존의 계획을 보면 마을의 문화자료가 철저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산만하게 제시되고 있다.

마을의 독특한 문화자원의 정리는 정체성 확보와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후속되는 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이다.⁴⁾ 이 작업이 소홀하면 지역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되며,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왕왕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 까닭이다. 부연한다면

- ①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
- ②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상화 부진
- ③ 자기 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 ④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

라는 악순환은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다.

4) 이해준,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자료정리」 『박물관학연구』 2집(대전보건대 박물관학연구소) ; 2002 「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개발과 문화관광」 『한국관광학회 제52차 국제학술심포지움발표논문집』 한국관광학회.

[참고] : 발제관련 이해준 주요저서

- 1990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공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8 『한국의 세시풍속』 (국립민속박물관, 책임연구)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6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공저)
 2006 『한국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와 마을문화』 (한국학연구총서 11, 공저)
 2008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7 『계, 친목과 협력의 모듬살이』 (한국학진흥원, 13명 공저)
 2010 『충남의 민속문화』, 충청남도, 국립민속박물관(공저)
 2011 『민속마을 다양화 기초조사 및 지정연구』 (책임) (문화재청)
-
- 1988 「조선후기 영암지방 洞契의 성립배경과 성격」 『전남사학』 2집, 전남사학회
 1991 「조선시대 香徒와 村契類 촌락조직」 『역사민속학』 창간호, 역사민속학회
 1993 「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 『한국문화』 14집, 서울대한국문화연
 1996 「한말-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 본 촌락사회상」 『정신문화연구』 5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농촌문화지식자원의 활용방향」 『농촌생활과학』 23권 3호, 농촌진흥청
 2003 「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연구』, 안동대민속학연구소
 2005 「한국의 마을문화와 자치 자율의 전통」 『한국학논집』 32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조선후기 촌락문서의 생산과 관리」 『고문서연구』 28집, 한국고문서학회
 2006 「농촌 전통지식자원으로서 구전자료의 가치」 『향토사연구』 18집 한국향토사전국협의회
 2007 「지역 역사문화 축제의 올바른 계승과 마을축제」 『웅진문화』 20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10 「호서 3대 명가의 모듬살이와 전통」, 『충남의 민속문화』, 충청남도, 국립민속박물관